

“벼 안 심겠다” 지원금 받고 재배한 농가들

농식품부 국감, 전국 21% 약속 어겨 ... 전남 24%·광주 54%

쌀값 상승세와 맞물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딜레마 빠져

벼 재배를 줄이기로 약속한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그대로 쌀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쌀값 상승세와 맞물려 ‘딜레마’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원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논 면적은 전국적으로 21%에 달했다.

10개 농가 중 2개 농가는 논에 벼를 대신해 다른 작물을 심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그대로 벼를 심었다는 얘기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참여면적은 1만118ha(1만1336농가)로, 현재까지 67% 수준인 6325ha(8355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친 상태다. 이행점검을 마친 대상 면적 가운데 부적합 면적만 1518ha(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았던 충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세 번째는 경북(19%)이었으며, 경남

(17%), 전북(16%) 등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면적이 충남이나 경북 등 타지역의 두배를 뛰어넘는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광주지역 농가들의 미이행률이 제일 높았다.

광주에서는 벼 재배농가 2곳 중 1곳은 논에 벼를 대신해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지원금을 받아 놓고 뒤로는 쌀을 그대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9ha(195농가)가 참여한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91% 수준인 10.9ha(176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친 상태로, 점검을 끝낸 곳의 무려 54%가 부적합으로 판정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39%), 부산(16%), 대구(11%), 울산(10%), 인천(5%) 순이었다.

이처럼 미이행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쌀값

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됐으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박원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며 “정부는 현장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인상과 발작물 농기계 지원 등 대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준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 내년 제도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투자심리 다시 진정 ... 변동성 커질 듯

지수ETF 활용 지수트레이딩에 관심을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05.67포인트(4.66%) 하락하며 2161.85포인트를 기록하고 코스닥지수도 42.20포인트(5.45%) 하락해 731.50pt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목요일에만 4.4%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고 일일 하락폭으로는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주식시장 랠리를 주도했던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이 기폭제 역할을 했고 북미 2차 정상회담 시점이 중간선거 이후로 확정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 금리 상승과 스파이칩을 포함한 미국의 대 중국 기술유출 공세 심화로 미·중 무역갈등과 보안비용 상승이 기업측면에서 실적악화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조만간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서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까지 작용하며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한 것이다. 미국증시 폭락 이후 아시아증시와 유럽증시 모두 동반 급락하며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였다.

한국증시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그 동안 글로벌증시와 함께 상승하지 못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주가에서 2011~2016년 동안 경험했던 장기박스권(1800~2200)으로 되돌아가면서 추세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지수의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다. 우선 1월 고점대비 -18%로 하락폭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스피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경우는 딱 두 차례 발생했다.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코스피지수는 22%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는 54% 하락했지만 현재상황을 20% 이상 하락했던 시스템 위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금융위기 이후 바닥권에 도달했다. 코스피 12개월 예상이익기준 PER(주가수익비율)은 8.1배 수준까지 하락했고 2011년 10월 PER 7.8배 이후 최저수준이다. 현재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도 0.92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89배에 근접한 수준이고 금융위기 당시 하락폭 0.89배를 적용해도 코스피지수는 2060포인트 수준이다.

추가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코스피지수가 바닥 또는 V자 반등을 확인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불만하다. 우선 수급측면에서 최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공세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개인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잔고 규모가 여전히 높아 추가적인 해외변수에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미국금리 급등세가 진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8일 공개될 미 연준 9월 FOMC 의사록 내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에 따른 나스닥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특히 나스닥지수 안정은 한국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안정에 중요한 요소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변화는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것으로 일반투자자가 가장 쉽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조만간 시작될 미국 실적발표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는 위안화 안정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에 비해 위안화 절하는 심각하게 무질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달에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안정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고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일부 언론보도가 있지만 지정여부에 주목이 필요하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증시와 미국증시 반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됐고 가격상으로도 상당한 악재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 추가하락세가 더 가속화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차 단기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외 증시상황을 본다면 반등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단기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도종목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는 지수ETF(레버리지ETF, 인버스ETF)를 활용한 지수트레이딩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니투자증권 광주지점장>

쌀 등급 ‘미검사’ 없애 새 등급 표시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제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청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쌀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저수지 제방 제조작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윤석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사면광역제초기를 활용해 보성 귀산제와 죽척제 7644㎡에 대한 제조작업을 벌였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에’ 홍보

‘2018 광주국제식품전’ 참여 홍보관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018 광주국제식품전’에 참여해 전남지역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 농산물 홍보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국제식

품전에서 전남 대표과일인 무화과, 단감, 사과를 비롯한 각종 과일 가공식품 등을 선보였다.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무화과양갱’과 ‘감발랭’ 등 과일 가공상품에 대한 해외바이어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전남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에’는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부가 개발한 지역브랜드다.

지난 2016년 단감을 시작으로 무화과, 사과, 만감류 등 점차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과일시장에서 전남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이번 박람회 통해 ‘상큼에’가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어들에게도 알려져 전남 대표브랜드로 입지가 높아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